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 본 메이크업 경향에 관한 연구

-2003년 S/S이후 크리스찬 디올을 중심으로-

박 선 희* · 임 영 자**

공주영상대학 코디메이크업과 교수* ·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 교수**

Make-up Trend i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Focusing on Christian Dior after 2003 S/S-

Sun-Hee Park* · Young-Ja Im**

Professor, Dept. of Codi & Make-Up Kongju Communication Arts College*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ejong University**

(2005. 9. 1 투고)

ABSTRACT

The modern society has been experiencing a cultural quickening that is accompanied by the rapid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al changes. In the dim chaos where the future is uncertain, the modern women are gradually discovering the value and meaning of their existences in the society.

The fashion and make-up Christian Dior presented i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suggest us various genres from which the remarkable creative and artistic accomplishments can be found.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make-up techniques used by Christian Dior for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after 2003 S/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make-up trend in the Haute Couture collections suggest that the make-up today is not simply to decorate a face beautifully. The make-up has become a new art form for the modern women to express their various originality and creativity while linking it to the social and cultural elements.

Key words: Haute couture collections(오프꾸뛰르 컬렉션), make-up(메이크업)

I. 서론

현대 사회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급변하는 문화적인 태동을 맞이하고 있다.

미래가 불확실하고 모호한 혼돈의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여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 가치와 의미가 점차적으로 부각 되어지고 있다.

봉건주의 사회에서 남녀 평등주의 사회로 접어들면서 여성의 지위에 따른 사회 활동 범위의 영역은 점차적으로 확대 되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현대 여성에게 패션과 메이크업은 이미지 연출을 위한 표현 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웃을 입는다'라는 것은 기본적인 목적 외에 보고 즐기는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며¹⁾ 인간의 미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어서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대인들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평범 보다는 '독특함'과 '개성 위주'의 자기만의 미적 충족이나 유행이라는 대중 문화의 물결과 함께 공유되기를 원한다.

일반적으로 유행에 가장 민감한 영향력을 주는 요인은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특정 연예인의 드라마등 매스컴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개개인의 독창적인 미(美)를 추구하기보다는 '따라하기'의 비(非) 개성적이거나 비(非) 독창적인 미(美)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참신한 이미지 연출에는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좀더 독창적인 토탈 패션으로써의 개성미를 연출하는데 창조적인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것은 세계적인 트렌드를 리더해 가는 파리, 밀라노, 뉴욕, 런던의 4대 컬렉션을 들 수 있다. 이는 세계적인 디자이너들이 참여하여 참신한 아이템의 디자인으로 전 세계의 여성들에게 감동을 주고 토탈 패션으로서의 새로운 유행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특히, 오프뚜뜨르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크리스찬의 의상과 메이크업은 그 창조성과 예술성이 돋보이는 다양한 장르를 제시해 준다. 크리스찬 디올은 의상뿐만 아니라 코스메틱 산업에 있어서도 대중들

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로 1997년 존 갈리아노가 맡은 후 크리스찬 디올의 우아함에 존갈리아노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실험적인 시도, 현대적인 감각등으로 새롭게 크리스찬 디올을 변화 시켰다.²⁾ 메이크업에 있어서는 과격적이고 대담한 메이크업으로 실현되어져 메이크업이 단지 패션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이 아니라 독자적인 예술의 영역으로 나타내어져 주목을 받아왔다.

많은 디자이너들 중에서 크리스찬 디올의 존갈리아노의 작품은 각 나라의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의미 부여의 역할을 해 줄 뿐만아니라, 창조적인 메이크업의 예술 세계를 폭 넓게 표현해 주어 메이크업 아티스트를 꿈 꾸는 신세대 들에게 많은 기대감을 갖게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03년 S/S이후 크리스찬 디올의 오프뚜뚜르 컬렉션을 중심으로 메이크업의 이미지를 네가지로 분류하고, 이미지별 메이크업의 유형을 형태(Shape), 색채(Color), 질감(Texture)의 조형적인 측면을 분석하여 메이크업의 경향에 대해서 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관련 학위 논문과 학회지 논문, 그리고 패션 관련 전문 잡지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매 시즌별로 나타나는 메이크업의 각 특성을 분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메이크업의 정의와 역할

현대 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외적인 요소 중에서 사람의 이미지를 변화 시켜주는 역할 중의 하나가 바로 메이크업이다. 메이크업은 인간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의 하나로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성의 '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한다.

강병덕(1984)은 현대에 와서 메이크업의 의미는 인간 신체의 일부분에 색상을 부여함으로써 얻어지는 외형적 아름다움의 추구 행위뿐만이 아니라 미

의식 속에 자아를 하나의 개성으로 표현하는 이미지 업(Image-up)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하였다.³⁾

양진희(2001)는 메이크업은 주제에 따라 여러 기법으로 재료등에 구속 받지 않고 인간의 육체에 새로움을 추구하여 인체를 디자인한다는 뜻으로 그 방법이 다양하여 눈, 코, 입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점에서 내적 정신과 외적 감각으로 창조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⁴⁾ 또한 메이크업은 자신의 이미지를 매력적이고 아름답게 보이게 해주어 대인관계나 사회 생활 하는데 있어서 보다 자신감있고 적극적인 자세를 갖게 해준다.

메이크업은 자신의 내면적인 부분과 외적인 부분을 조화롭게 표출시켜 외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미화적인 역할을 해준다.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나 직업, 신분을 표시하고 사회적인 예의를 표현하는 사회적인 역할과 그 사람의 성격이나 사고 방식, 가치 추구 등을 알 수 있는 심리적인 역할을 해준다.

특히,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패션쇼 메이크업(Fashionshow Make up)은 무대의 높이, 관객과의 거리, 조명과의 색채관계, 의상색, 의상 스타일, 디자이너의 사상등을 고려한 메이크업으로 스테이지 메이크업(Stage Make up)의 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패션쇼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유행의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니라 의상, 헤어스타일, 액세서리, 잡화 등 토털 패션의 요소로서 자신의 가치관, 기호, 상황 등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자신이 속한 사회, 문화와의 교류를 의미하는 차원으로 확대 시킨 개념이다.⁵⁾

그리고 디자이너들이 제시하는 의상 스타일과 조화 또는 부조화의 미(美)로 형태나 소재 등에 있어서 창의적인 역동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2. 오프꾸뛰르 컬렉션의 발생배경

오프꾸뛰르(Haute Couture)는 주문복을 전문으로 하는 '고급 의상점'이라는 의미와 일반 주문복이 아닌 '고급 주문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특히 오프꾸뛰르 컬렉션에서 보여주는 디자이너들의 작

품들은 개개인의 감성과 추구하고자하는 표현의 자유로 다양한 창의적인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도록 하여 패션인들에게 뜨거운 박수의 찬사로 주목 받고 있다.

패션쇼는 살아있는 모델에게 작품을 입혀 무대 위에서 작품을 소개하는 것으로⁶⁾ 패션 디자이너의 작품과 그 작품들을 표현하는 모델,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무대와 음향, 조명외에 토털 뷰티룩의 조화로 이루어지는 종합 예술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14세기초 패션을 보여준 것은 인형(doll)을 이용하여 베니스의 성모몽소승천축일(Assumption Day)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⁷⁾ 그 후에 파리에 있는 Rambouillet호텔에서 실물크기 인형 두개에다가 다음해에 유행될 스타일의 옷을 입혀서 전시하였다.

패션 인형은 17, 18세기 유럽의 전 지역에 보내지게 되었으며 모자상, 양재사와 미용사들에 의해서 머리와 의복 스타일 뿐만 아니라 보석의 스타일까지 보여주어 토털 패션으로 제시된바를 알 수 있다.

19세기 중엽 워드(Charles Frederick Worth)는 계절마다 모드 작품의 컬렉션을 전시하는 제도를 최초로 주장하였고 작품 견본 전시를 위해서 살아있는 마네킹의 활용을 생각해 낸 디자이너로⁸⁾ 자신의 부인에게 자신이 만든 술을 그녀의 어깨 위에 걸치게 하여 고객에게 전시해 보였다.

그는 또 아내를 위해서 심플한 드레스와 모자를 만들어 주었는데, 그것이 고객들 사이에 평판이 높아 다시금 같은 모양의 드레스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게 되어 매상을 촉진시키게 하였다.

또한 1900년대 초반에 폴 푸와레(Poul Poiret)는 러시아,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방문하여 인형 대신 생동감있는 마네킹을 이용하여 그의 의상을 소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⁹⁾ 1906년에는 아내를 위해서 코르셋이 없는 드레스를 착용하게 하였는데 이것을 기점으로 파리 여성들의 의상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1910년 푸와레는 호블 스커트를 도입하면서 현대적인 꾸뛰르의 전당을 구축하고 그 메카니즘을 정비한 인물로서의 위치를¹⁰⁾ 굳히게 한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패션쇼는 실제 패

션 모델을 등장시켜 계절별로 구분하여 1914년에 의류 제조업체 주축로 시카고(chicago)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60년대 이후에는 조화를 이룬 음악과 조명뿐만 아니라 다각적 미디어(Multi-Media)가 함께 사용되어져 점차로 다양화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패션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내고 있다.¹¹⁾

이러한 것이 바로 오늘날의 오프꾸뛰르 컬렉션을 탄생시키는 모티브가 된 것이며, 오프꾸뛰르는 1년에 두 번 열리게 되는데 S/S컬렉션은 1월 말에 열리고, F/W컬렉션은 7월말에 열린다.

Ⅲ. 크리스찬 디올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유형

크리스찬디올은 자연이나 민족적, 토속성 혹은 원시적 테마를 여행을 하면서 실제로 보고 느낀 것과 자신의 감성속에 있는 또 다른 실체라는 심상의 이미지를 유머러스하게 패러디하여 형태화시켜 이를 비정형화, 부조화속의 다양한 이미지의 조형미로서 현대인들이 추구하는 창조적 흥미를 유발하는 실험적 표현 방식을 활용 하였으므로 다음과 같이 네 가지의 이미지로 분류하여 메이크업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1. 에스닉 이미지

1) 에스닉의 개념

에스닉(ethnic)의 사전적 의미는 '민족의' 또는 '민속의' 그리고 '민족 특유의'라는 일반적 의미 이외에 '종족적 사회'와 '이(異)교도의'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으며 패션에서의 에스닉은 민족적이고 토속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의복 스타일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¹²⁾ 에스닉의 특징으로 각 민족 고유의 문양과 염색 및 방직과 자수 등에서 영향을 받아 그 느낌을 강조하여 디자인된 것으로 페이지리나 기하학적 무늬의 문양과 이국적 목각 및 도자기를 이용한 액세서리 등이 수공예 적이며 소박하고 토속적인 요소를 볼 수 있다. 일찍부터 기독교

문화에 속한 서구인들에게 다른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수용되어져 왔으나 1960년대 이후 인류의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문화적 움직임의 영향이 사상과 철학의 원조로서 동양 정신세계에 대한 탐구가 이루어져 오면서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흐름으로 부각되게 되었다.¹³⁾

21세기 들어서면서 에스닉 룩의 서양 기준이 아닌 다양한 지역과 문화 유산을 보여주는 세계 여러 나라의 민속 풍과 스페인을 비롯한 오스트리아 티롤 지방 및 극한의 기후를 지닌 티벳 고원과 몽골의 유목민 그리고 고대 마야와 잉카등 최근에는 다양한 분위기로 믹스 매치되어 더 풍부한 느낌으로 표현되고 있다.¹⁴⁾

2) 에스닉 메이크업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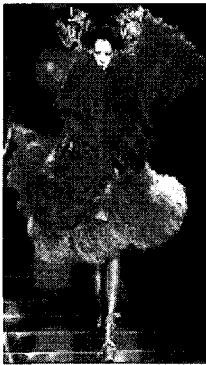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에서 나타난 에스닉 메이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은 붉은색의 화려한 프릴 장식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일본의 가부끼 분장을 연상하듯이 얼굴 전체에 화이트 페인팅을 하고 눈꼬리 부분은 붉은색의 사선 형태로 날카로운 이미지를 표현 하였으며, 입술은 중앙 부위에만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그림 2>는 동양적인 문양의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일본의 가부끼 분장의 전통미를 살려 눈매는 붉은색으로 물고기 모양을 연상케 하는 표현과 함께 검정색 라인을 아래로 길게 표현 하였으며, 입술은 중앙 부위에 붉게 강조했다.

<그림 3>은 기모노 의상을 연상하듯이 허리 장식을 강조한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얼굴 중앙에 마스크를 쓴 것 같은 느낌으로 화이트 페인팅을 하고, 눈썹은 가는 일자 눈썹 형태와 눈앞머리는 금색으로 표현하였고, 눈매 부위는 붉은색으로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입술 중앙에 하트 모양으로 표현하고 금색 펠로 강조했다.

<그림 4>는 기모노 의상인 가운 스타일과 모피를 조화시킨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얼굴 중앙의 마스크를 쓴 것 같은 느낌으로 화이트 페인팅을 하고 눈앞머리는 검정색 라인으로 새의 부리를 표현하였고, 붉은색으로는 새의 머리를 연상케 하고, 입술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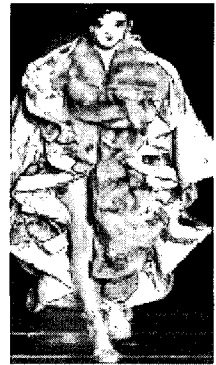
<그림 1> 2003-2004 S/S
Book Moda



<그림 2> 2003-2004 S/S
Book Moda



<그림 3> 2003-2004 S/S
Book Moda



<그림 4> 2003-2004 S/S
Book Moda

입술 중앙에 하트 모양으로 강조했다.

따라서 에스닉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형태적인 면은 원형, 수평형, 사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화이트, 레드, 골드, 블랙을 주로 사용하였고 질감적인 면은 매트한 표현과 펄을 사용하여 화려한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일본의 가부키 분장을 전통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켜 재 창조된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였다.

2. 레트로 이미지

1) 레트로의 개념

‘과거의 아름다움으로의 회귀’ 즉 복고풍이라는 뜻으로서 레트로(retro)는 과거로 올라간다는 뜻으로 과거의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현시키는 것이다. “레트로 현상은 메이크업뿐만 아니라 광고와 인테리어 및 음악과 헤어스타일 그리고 패션 등 여러 가지 예술 면에서도 볼 수 있다. 패션에서는 이러한 경향을 레트로 스타일¹⁵⁾이라 칭한다.

이와 같이 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과거의 양식을 모방하여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재수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결국 레트로 패션의 출현은 20세기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고갈된 아이디어의 창출을 위해 과거를 그

리위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따뜻한 감성과 새로운 창조성을 발견하는 것이라 하겠다.

현대 패션에서의 “레트로는 과거에 유행되어 대중에게 익숙한 선행 양식 즉 과거의 양식은 모방하나 내적 의미와 외적 형식의 변화를 이루는 패러디 과정을 통해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표현성을 갖는다.¹⁶⁾

2) 레트로 메이크업의 특성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에서 나타난 레트로 메이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는 로코코시대의 복식을 연상케하는 화려한 황금색 장식의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이집트 시대에 주로 왕족들이 턱부위에 수염을 깎고 인조 수염을 달아 위엄을 표시했던 모습을 나타내 주며, 눈부위에는 황금색 펄로 화려한 느낌을 표현함과 동시에 눈아래 부분에는 화이트 컬러를 사용하여 눈이 더욱 커 보이도록 강조해 주었다.

<그림 6>은 어깨에는 이집트 시대의 사제들이 사용했던 호피 무늬의 술과 스팅크스와 같은 기하학적인 규칙성으로 태양의 광선을 형상화한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세련되고 강한 색채감각이 돋보이도록 금색펄과 녹색을 사용하여 눈매 부위에 화려하게 표현 했으며 검은색 시트지로 눈꼬리와 눈썹이 강조되게 하여 이집트 시대의 메이크업 특성이 잘 나타난 작품이다.



〈그림 5〉 2004-2005 S/S
Fem Collections



〈그림 6〉 2004-2005 S/S
Fem Collections



〈그림 8〉 2004-2005 S/S
Fem Collections



〈그림 9〉 2004-2005 F/W
Fem Collections

〈그림 7〉은 곤충의 날개를 연상하듯이 등 뒷부분에는 날개 장식의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눈매 부위에 청록색과 화이트색으로 표현하고, 눈썹은 가는 곡선형으로 그려주었으며 입술화장은 붉은색으로 표현했다.

〈그림 8〉은 바이올렛 컬러의 호피 술 장식의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1930년대를 연상하는 가는 눈썹과 더불어 눈앞머리와 언더라인 부위에는 과장된 라인의 눈매를 표현하고 인조속눈썹을 붙여 눈을 강조해 주었으며, 바이올렛 아이섀도우 표현이 더욱 신비로움과 강한 이미지를 연출해 준다.

따라서 레트로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형태적인 면은 곡선형, 사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골드, 화이트, 그린, 블랙, 바이올렛을 주로 사용하였고 질감적인 면은 펠을 사용하여 신비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이집트시대의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하듯이 화려한 펠과 시트지를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였다.

3. 오브제 이미지

1) 오브제의 개념

영어의 「object」와 같은 의미로서 '대상물'과 '구조물'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이야깃거리' 및 '목표'라는 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오브제는 본래 물건과 물체 및 객체 등의 의미를 지닌 프랑스 언어이다. 초현실주의에서는 이것을 전용하여 독특한 표현 개념을 부여하여 구체적인 예술의 방법으로 삼았다. 즉 예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물건이나 그 한 부분을 본래의 일상적인 용도에서 떼 내어 절연함으로써 보는 사람에게 잠재된 욕망이나 환상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상징적 기능의 물체를 말한다. 또한 포스트 모던 스타일은 질서 정연하게 정리된 공간이나 사물의 개념이 와해되는 것으로 전통적인 개념의 붕괴를 말한다. "본래의 기능을 거부하는 일련의 일탈적인 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성요소의 형식과 내용이 사용과정에서 형태와 크기의 왜곡 및 본래 목적과 사용 목적의 불일치¹⁷⁾ 등을 통해 나타난다.

이 스타일은 각 영역에 고유한 도구라는 한계를 넘어 이제까지 사용되어 오지 않은 도구들로 다양한 소재와 플라스틱 및 비닐과 쇠붙이 및 낡은 골동품 등을 볼 수 있다.

이처럼 패션과 메이크업에서는 장식을 사용하지 않던 곳에 오브제를 사용함으로써 전통적 고정관념에서 이탈되는 충격적인 새로움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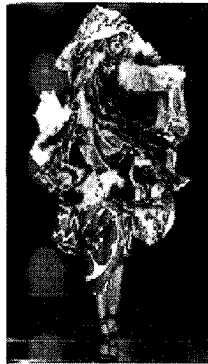
2) 오브제 메이크업의 특성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에서 나타난 오브제 메이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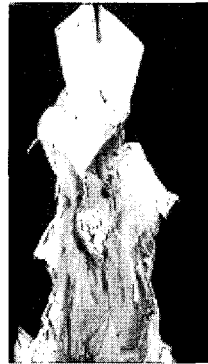
〈그림 9〉는 국화꽃을 사용하여 의상과 머리 장식



〈그림 9〉 2003-2004 S/S
Book Moda



〈그림 10〉 2003-2004 S/S
Fashion News



〈그림 11〉 2003-2004 S/S
Collezioni



〈그림 13〉 2003-2004 F/W
Book Mod

에 연출하였으며 메이크업은 핑크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눈썹은 2/3만 가는 아치형으로 그렸으며 눈과 볼은 꽃잎을 연상하듯이 블루 페인팅으로 표현하였고 언더라인 부위에 블루 인조 속눈썹으로 꽃잎을 부착한 것과 같이 장식했다. 입술은 버건디 컬러로 입술 중앙만 강조했다.

〈그림 10〉은 기하학적인 무늬의 갖을 쓴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화이트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볼에는 레드, 옐로우, 블랙컬러의 원형 형태로 강조했다.

입술은 윗입술에 검정색의 날카로운 산 모양의 형태로 표현했고 아랫 입술은 붉은색으로 중앙 부위에만 둥글게 표현했다.

〈그림 11〉은 세모·네모의 다각적인 모양의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핑크 페이스 페인팅을 하고 눈썹은 1/2의 가는 아치형으로 그리고 눈앞머리와 볼 부위, 관자놀이 부위에 블루 페인팅을 하였으며 눈의 위·아래 부위에 화이트 인조 속눈썹을 부착하여 꽃잎 형태로 장식했다.

〈그림 12〉는 화려한 스팅클 의상과 머리에는 블루 컬러의 깃털 장식과 함께 메이크업은 눈을 강조하듯이 블루와 실버색의 펄 파우더를 사용하여 눈썹 부위까지 넓게 표현하고 언더라인 부위에 블랙 인조 속눈썹을 길게 부착하였으며, 입술은 스킨 옐로우 컬러를 사용하여 정열적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오브제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보면, 형태적인 면은 블루 인조 속

썹을 사용하여 꽃잎 형태로 부착하였고 원형, 아치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블루, 버건디, 레드, 옐로우, 블랙, 화이트, 그린, 핑크, 실버, 스킨 옐로우의 다채로운 컬러를 사용하였고 질감적인 면은 매트한 표현과 펄을 사용하여 안정되면서 화려한 이미지로 표현 하였다.

전체적으로 컬러 페인팅의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였다.

4. 그로테스크 이미지

1) 그로테스크의 개념

그로테스크(grotesk)의 어원은 동굴 혹은 발굴이라는 의미를 가진 이태리어 그로뜨(grotte)이며, 여기에서 형용사형인 그로테스코(grottesco)와 명사형인 그로테스카(la-grottesca)가 생겨났다. 불어로는 크로테스끄(crottesque)라는 말이 일찍이 1532년부터 사용되었고, 영어에서는 이 말이 쓰이다가 1640년 무렵 그로테스크(grotesque)로 대체되었다.¹⁸⁾ 그로테스크의 개념이 예술개념으로 발전한 것은 1775년 뷔란트(Wieland)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는 캐리커처(caricature)의 본질 규명을 시도하는 가운데 그 이전까지 무늬 등의 장식술 측면에서만 제한되어 왔던 그로테스크의 개념을 보편적인 예술 개념으로 발전시키고 미학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세가지로 분

류하고 있다.

첫째, 그로테스크의 창작 태도는 자연의 모방이 아니라 거친 상상력의 산물이다. 즉, 그로테스크는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이며, 비논리적이고 허구적인 태도에서 성립된다.

둘째, 그로테스크는 초자연적이며 모순적인 것으로서 기존 질서가 용납되지 않는 지옥의 세계, 즉 소원된 세계를 표현의 대상으로 한다.

셋째, 세계가 본래의 모습을 상상하여 변형된 모습을 독자에게 보임으로써 우스꽝스러움, 놀라움, 공포감, 당혹감을 느끼게 하여 표현된 사물을 중립적 위치에서 혹은 객관적 위치에서 관찰 비판하여 내면의 숨겨진 진의를 파악케 한다.¹⁹⁾ 이렇듯 그로테스크라는 용어가 캐리커처(caricature : 풍자적 회화)와 관련됨으로써 우스꽝스러운, 뒤통그러진, 부자연스러운, 부조리, 자연의 왜곡 등을 의미한다.

2)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특징

크리스찬 디올의 작품에서 나타난 그로테스크 메이크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3〉은 짐시를 연상케 하는 레이어 룩의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볼부위에 다크 브라운색으로 강렬한 볼터치로 강조했고, 몸 전체에도 그을린듯한 구리빛 피부 표현으로 저저분하면서 번들거리는 더티 메이크업으로 표현했다.

〈그림 14〉는 블랙망과 화려한 프릴 장식으로 띠를 두른듯한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눈 위·아래

부위에 불규칙한 블랙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눈매를 날카롭게 강조하고 입술은 접근하기 힘든 블랙의 글로시한 입술로 혐오스럽게 표현하였으며 이마에는 뱀의 형상과 같은 문양으로 끔찍스러운 느낌이 들게 하였다.

〈그림 15〉 부조화적인 천박스러운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가느다란 일자형의 눈썹형태로 그렸으며 눈과 볼부위까지는 레드컬러로 마치 해바라기 꽃처럼 표현했고, 눈매 부위는 블랙으로 강조하듯이 표현하였으며, 입술은 블랙과 레드로 표현하여 에로틱한 느낌을 갖게 한다.

〈그림 16〉은 일본 무사를 연상케 하는 의상과 함께 메이크업은 긴 삼각형의 형태인 화이트 페이스 페인팅으로 표현하고 눈썹은 블랙 시트지로 눈앞머리 부위까지 각이 진 형태로 부착하였으며, 눈썹뼈 부위에는 화이트로 강조했다.

눈 아래 부위에는 블랙으로 마치 속눈썹을 붙인 듯하게 그려서 혐오스러운 정도로 과장되게 표현하여 강조했다.

따라서 그로테스크 이미지의 메이크업을 조형적인 측면에서 분석해 보면, 형태적인 면은 블랙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눈매 표현과 수평형, 삼각형, 직각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다크 브라운, 레드, 블랙, 화이트를 주로 사용하였고 질감적인 면은 글로시한 표현으로 윤기있는 풍만한 이미지와 블랙 시트지 사용으로 과장된 눈썹의 혐오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였다.



〈그림 13〉 2003-2004 F/W
Collezioni



〈그림 14〉 2003-2004 F/W
Book Moda



〈그림 15〉 2003-2004 F/W
Collezioni



〈그림 16〉 2003-2004 F/W
Collezioni

전체적으로 집시 여인의 모습을 정돈되지 않은 지저분한 더티 메이크업으로 표현 하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힘든 험오스러운 느낌의 과장된 블랙 인조 속눈썹을 사용한 메이크업으로 연출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에스닉 이미지는 형태적인 면은 원형, 수평형, 사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화이트, 레드, 골드, 블랙을 주로 사용하였으며 질감적인 면은 매트한표현과 펄을 사용하여 전체적으로 일본의 가부키 분장을 전통미를 그대로 살리면서 현대적인 감각을 조화시켜 재 창조된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둘째, 레트로 이미지는 이집트시대의 클레오파트라를 연상하듯이 화려한 펄과 시트지를 사용하여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고 형태적인 면은 곡선형, 사선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골드, 화이트, 그린, 블랙, 바이올렛을 주로 사용하였고 질감적인 면은 펄을 사용하여 신비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화려하면서 임팩트한 이미지의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셋째, 오브제 이미지는 형태적인 면은 블루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꽃잎 형태로 부착하였고 원형, 아치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블루, 버건디, 레드, 옐로우, 블랙, 화이트, 그린, 핑크, 실버, 스칼렛 오렌지의 다채로운 컬러를 사용하였고 질감적인 면은 매트한 표현과 펄을 사용하여 안정되면서 화려한 이미지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컬러 페인팅의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넷째, 그로테스크 이미지는 형태적인 면은 블랙 인조 속눈썹을 사용하여 날카로운 눈매 표현과 수평형, 삼각형, 직각형으로 표현하였으며 색채적인 면은 다크 브라운, 레드, 블랙, 화이트를 주로 사용하였고 질감적인 면은 글로시한 표현으로 윤기있는 풍만한 이미지와 블랙 시트지 사용으로 과장된 눈

썹의 험오스러운 이미지로 표현하여 전체적으로 집시 여인의 모습을 정돈되지 않은 지저분한 더티 메이크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접근하기도 힘든 험오스러운 느낌의 과장된 블랙 인조 속눈썹을 사용한 메이크업으로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오피쿠튀르 컬렉션에서 본 메이크업의 경향은 단순히 얼굴만 아름답게 꾸미는 차원이 아닌 사회, 문화적인 요소를 결부시켜 다양한 독창적이고 창조적인 메이크업의 표현 기법으로 현대여성들에게 메이크업이 새로운 예술 세계로 열망할 수 있게 하였다.

참고문헌

- 1) 김경순 (2000). 세기말에 나타난 메이크업의 경향. 한국미용학회지, 6(3), pp. 527-549.
- 2) 이지영 (2003). 메이크업을 통한 캣워크 연출에 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1), p. 327.
- 3) 강병덕 (1984). 토타패션으로써의 메이크업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7.
- 4) 양진희 (2001). 현대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 건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1.
- 5) 최은지 (2000). 아방가르드 패션을 위한 메이크업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38.
- 8) 조성화 (2003). 인터넷 패션사이트에 나타난 패션쇼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2.
- 6) 이지희 (1989). 정보원으로서 패션쇼의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5-16.
- 7) 김문숙 (1989). 복식디자인. 경춘사, p. 17-20
- 8) 한전미 (1988). 패션쇼에 관한 실태분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1-23.
- 9) 허준 (1995). 파리모드200년. 유럽문화사, p. 5.
- 10) Mary Ellen Dichl (1985). *How to produce a fashion show*. New York, p. 11.
- 11) 이연희 (2002). 패션문화. 예학사, p. 60.
- 12) 이주현 (2003).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63.
- 13) 이복순 (2006). 패션쇼에 나타난 헤어스타일 연구. 한남대학교 사회문화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21.
- 14) 이주현 (2003).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4.
- 15) 장희숙 (1995).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트로 경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 18.
- 16) 김윤 (2003). 현대헤어스타일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키치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체예술학회지, 4(1), p. 137.
- 17) 김영부 역 (1986). 그로테스크, 필립 톰슨저, 서울대학

교 출판부, p. 17.

- 18) 차제부 (1982). Der Besuch der alten Dame에 나타난
그로테스크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9-10.